



농림부

6번째 고병원성 AI 발생

농림부는 지난 2월 9일 AI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경기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56, 대표 : 박용순)의 산란계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2월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경기도 및 안성시 소속 공무원 1백38명, 관내 농·축협 직원 1백38명 등 총 2백43명을 투입해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산란계 13만3천수를 비롯해 5백m 이내 돼지 5개 농가 7천1백두와 3km 이내 31개 가금류 사육농가 30만9천수 등을 강제폐기 시켰다.

한편, 농림부는 6번째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발생농장에서 20km 떨어진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리에서 운영 중이던 산란계 육성농장의 산란계 13만7천수에 대해서도 예방차원에서 강제폐기 조치를 취했다.

이번 AI 발생으로 10km 이내 경계지역에 안성시를 비롯해 이천시, 충북 음성군, 진천군 등 2개도 4개 시군이 포함되게 됐다.

■ 영국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조치

농림부는 지난 2월 1일 영국 남동부 서퍽(Suffolk) 지방의 칠면조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지정 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부 고시 제2006-63호, 2006. 11. 2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산 가금, 가금육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검역 중이던 종오리 3천6백45수에 대해서는 강제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취하는 한편 2일 검역이 완료된 종오리 6천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금생산물은 HPAI 잠복기 및 안전기간을 고려하여 발생일(2007. 2. 1)로부터 28일을 역산한 날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농림부는 지난 2월 7일 한강CM(주)에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하림 등 이미 시행에 돌입한 일부 업체들은 조속한 전면 확대를 요구했으나, 8만수 미만의 중소규모 도계장들은 포장유통 의무화의 전면 시행과 동시에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현행 규정대로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닭고기 전량에 대해 심부온도를 2°C에 맞춰 밀봉포장하기 위해서는 수당 1백50~2백원의 원가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유통단계에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반면, 중소기업도 도계장들의 경우 포장시 심부온도를 2°C로 맞추기 위해서는 '에어칠링' 시스템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비를 갖춘다고 해도 브랜드인지도에 따라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들 도계장들은 현재의 시스템으로 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거나 시장 자율에 맡겨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계육협회 김정훈 전무는 냉장 포장육의 경우 심부온도가 2°C인데 반해 현행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정'의 경우 유통단계의 보존온도가 10°C까지 용인되는데 따른 부작용과 정책상 모순을 지적, 닭고기에 대한 예외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윤기호 축산물유통과장이 이날 간담회 시작부터 포장유통 의무화가 정부의 의지가 아닌 계육업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하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의무화 자체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냉장포장육의 보존온도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해당업체들부터 원칙을 지켜 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출했다.

■ 가금류, 눈 피해 공제 보장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눈 피해를 가축공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모든 축종의 축사에 대한 공제료도 30%가 보조되며, 공제가입 대상 축종에 타조와 거위가 추가됐다.

농림부는 최근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 사업에서 가입 축

종과 보장범위 확대 및 공제료 보조 지원 등 경영안정 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는 닭 등 가금류에 대한 눈 피해를 가축공제 주계약에 포함해 보장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보장 범위에 빠져 있던 눈 피해가 주계약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공제에 가입하는 가금류 축산농가는 폭설로 피해를 입을 경우 가입금액 안에서 시가의 95%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까지 가축에 대해서만 공제료의 50%를 보조한 정부는 올해부터 축사의 풍·수재와 화재에 대해서도 공제료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다만 축사에 대한 공제료 지원은 소방방재청의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축공제 가입대상 축종에 타조와 거위가 새롭게 추가돼, 가입대상이 소·돼지·닭·말·오리·꿩·메추리·사슴·칠면조를 포함해 모두 11개 축종으로 확대됐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가금류 눈 피해 보장과 축사 공제료 지원이 화재와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입 축종도 앞으로 2008년 산양, 2009년 토끼, 2010년 꿀벌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지난달 28일부터 면제

그동안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부담해온 기반시설부담금이 2월 28일부터 면제됐다.

정부는 2월 28일자로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건축연면적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축사를 짓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학기술부

AI 등 인수(人獸)공통전염병 R&D 본격 추진

과학기술부는 250여 인수공통전염병 중 대응이 시급한 3개 전염병(AI, 브루셀라증, 공수병)을 선정하고 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이들 전염병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의 AI 발생과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약 130억원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5,000만원 내외의 소규모 과제 중심이었다.

과학기술부는 작년 5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과 TF팀을 구성하고, 인체감염시의 영향,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250종 이상의 인수공통전염병 중 대응이 필요한 25개 전염병 및 우선 대응이 시급한 3개 전염병을 도출했다.

현재 과학기술부는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의 예방치료기술',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유입방지기술', '신속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범정부 R&D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복지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학·연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안성지역에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지난 2월 14일 경기 안성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 소독약품 구

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자금으로 전북 익산·김제 지역, 충남 아산·천안 지역 등에 4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객감동센터' 설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2월 28일 기존의 '종합민원실'을 '고객감동센터'로 개편, 현판식을 갖고 고객 앞으로 한발 더 다가서기 위한 다짐을 했다.

검역원은 지난해 정부기관 민원만족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높은 성과를 올린 데 만족하지 않고 고객위주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감동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고객감동센터' 설치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는 물론, 검역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자료를 비치하고, FAX, 전화기도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동안 자기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체지방분석기, 혈압계 등을 비치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강문일 원장은 지금까지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문의하고 해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출발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 축산식품 표시방법 해설서 발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비자 등이 우유, 햄 등 축산식품의 표시에 관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정리한 '알기 쉬운 축산물의 표시기준' 해설서를 발간, 전국 교육청,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동 해설서는 지난 1년간 검역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등이 문의한 주요내용 79건을 발췌, 질의유형별로 분류해 수록한 것이다.

이홍섭 축산물안전과장은 동 해설서가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관련 공무원과 생산자에게

는 표시기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축산식품에 올바른 표시를 하도록 하고, 학교 단체 급식소와 소비자 등에게는 안전 축산물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031)467-1968 축산물안전과

■ 어린이 기호축산물 생산업체 등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봄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즐겨 섭취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35일간) 어린이가 좋아하는 햄, 소시지 및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소비자 단체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축산물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축산물은 1588-9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연구소

경북 영주시와 기술협약 체결

축산연구소(소장 이상진)와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월 27일 영주시청 대강당에서 축산종합기술 패키지화 지원으로 ‘명품 Brand 개발’을 위한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 공동사업을 통해 축산물 개방화와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발맞춰 고품격 축산물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위생, 품질, 안정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FTA는 물론 축산물 수입개방 등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명품 Brand 개발’을 위한 기초 기술지원과 축종별 종합적인 기술지원협력을 통한 축산물의 품질향상, 가축개량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에 두 기관의 상호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기술협약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5년이며, 축산연구소에서 개발된 축산종합기술을 집중 투입(컨설팅 지원)하여 축산업의 전국 모델화(한우, 젓소, 양돈, 양계, 양육, 기타)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협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전담팀과 축산연구소의 축산기술지원단(각 축종 및 세부분야별 총 37명 연구원)을 구성해 축종별 축산 신기술의 조기 정착을 통한 축산기술 표준화와 차별화된 브랜드화로 축산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축산연구소 이상진 소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패키지화된 축산종합기술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 맞춤형 축산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앞당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등급판정소

이재용 신임소장 취임



축산물등급판정소는 3월 5일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재용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재용 신임소장은 1975년 경북 군위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1999년 농림부 축산국 서기관, 2002년 축산국 축산경영과장(부이사관)을 역임했다.

특히, 이재용 소장은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근무시절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제 도입 시 제도의 실시 여건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소 설립 시에도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등 등급판정제도에 대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동안 농림부 축산국 등 공직생활에서 쌓아온 축산행정 및 현장경험 등을 토대로 축산물등급판정사업 활성화와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4년 3월 2일부터 3년간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이끌어 온 김경남 전 소장은 지난 3월 2일 퇴임식을 가졌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축산물HACCP지정 수수료 규정 제정

(사)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축산물HACCP지정수수료 규정을 제정하고 3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HACCP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과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에 HACCP 지정 받은 작업장(도계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정책’ 124P 참조).

농협중앙회

‘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 비전 선포



농협중앙회가 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23일 본사 대강당에서 경제사업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15년까지 농축산물 산지 유통의 60%, 소비지유통의 15%를 점유하는 등 초일류 농축산물 유통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연창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비전 선포문을 통해 농협 경제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팔아 줄 수 있는 역량 극대화와 신성장 동력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한 경제사업의 자립 경영기반 조기 구축’으로 잡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총 6조원의 자금을 농축산물 판매

장 확충, 물류기지 건립 등에 투자하고,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상품화, 수출 확대 등에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포문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과 사업 시스템을 적극 개선하여 세계 속에서 앞서갈 수 있는 '초일류 농축산물 유통그룹'을 기필코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농협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

■ 목우촌 또래오래, 미국 진출

농협목우촌의 치킨 프랜차이즈 또래오래가 미국 동부 최대 한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H마트(대표 권일연)와 MOU를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또래오래는 H마트와 MOU 체결을 통한 미국진출을 작년 8월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왔으며 상반기 미국 1호점을 필라델피아에 개점한 후 연내 10호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래오래의 미국 진출은 H마트 이용객의 80%가 한국의 맛을 그리워하는 한인교포인 점과 H마트가 현지시장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으로 보아 토종 브랜드인 목우촌 또래오래가 후라이드 치킨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성공적인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목우촌 이정호 사장은 "또래오래가 고객들에게 인정받아 3년 6개월 만에 800호점 개점이라는 급성장을 해왔다"며, "대부분 국내 프랜차이즈(franchiser)의 해외 진출 사례의 경우 현지 입맛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끊임없는 가맹점 관리가 부족하여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또래오래는 이러한 부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한인시장 공략 후 현지화 하는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래오래와 MOU를 체결하는 H마트는 1982년 뉴욕 퀸즈에 1호점을 시작으로 동부지역에 총 22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 중이다.

농협기금수급안정위원회

육용원종계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

농협기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원종계 4사(삼화육종, 한국원종, 하림, 마니커)가 참석한 가운데 육용원종계 수급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종계 및 육계 수급안정 차원에서 원종계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종계 4사의 경우 이미 자체사용량과 판매처 등이 확정된 상태여서 육계 수급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기금학회

2007년도 2차 임원회의 개최

한국기금학회는 올해 춘계 심포지엄의 주제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질병과 위생관리 방안으로 결정했다.

한국기금학회는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동 소재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2007년도 2차 임원회를 열고 최근 생산성이 업계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장소는 서울지역으로 잠정 확정됐으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학회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학술회의 등への 참여를 통한 연구지평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해외학술활동지원펀드는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에 한해 연간 1인 1회에 한해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관련 단체 2007년도 정기총회 소식

농협중앙회

남경우 신임 축산경제대표 선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에 남경우 전 농협 사료 사장이 당선됐다.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2월 28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축산경제대표 선출회의를 갖고 3번에 걸친 투표 끝에 남경우 후보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남경우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 농림고를 졸업하고 농협에 투신, 구 축협 축산발전기금관리국장, 수신업무부장, 농협중앙회 상무를 거쳐 (주)농협사로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로 물러났으며, 농축산업 및 농협 발전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사)전국한우협회

회원 농가 확충에 역점



(사)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월 28일 농협 안성연수원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목표를

한우산업의 안정화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확대와 정예화, 유통감시단 활동 효율화, 판매점인증사업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한우가격 안정화 활동 강화, 한우 교육의 내실화 구축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특히 올해는 회원 농가를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키로 하고 각 도지회별로 목표치를 부여해 2006년말 기준 1만4천여명인 회원수를 연말까지 총 2만2천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각 지부의 회원확충 노력을 위한 프리미엄으로 협회에서는 양허관세 조사료를 신규 회원농가 가입 성적이 우수한 지부에 대해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또한, 저조한 회비 납부율 문제(2006년 말 현재 57.1%) 해결방안으로 회비납부 우수지부에 대한 중앙회비 납부독려 차원에서 납부율이 우수한 지회 및 지부에 대해 10~30%를 지회·지부 운영비로 환원키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현행 5년의 대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대의원 자격도 회비납부 회원 50명 미만 지부에 대해서는 대의원을 둘 수 없도록 강화했다. 단 회장단에서 정한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회비납부 회원 30명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키로 의결했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제13대 이승호 회장 연임

(사)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13일 축산회관에서 142명의 대의원 전원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제13대 회장으로 이승호 현 회장을 선출했다.

한편, 이사(부회장), 감사는 도별 대의원들이 선출해 총회의 인준을 받았으며, 선출하지 못한 지역은 지역에서 선임된 결과에 따라 추인키로 했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이승호

■ 이사

- 경기(서울우유) : 권민한, 이한규, 유진형, 김태섭, 이호범, 서호원, 심상돈, 이종찬, 원유국, 손정렬(감사), (빙그레) 이환수, (연세·매일) : 김윤중

• 강원 : 배인성

- 충남 : 황규택(부회장), 김인상, 최재민, 정창영(감사)
- 충북 : 추후통보
- 전북 : 심동섭(부회장), 오금열, 박형림
- 전남 : 선종승, 이복만, 임종빈
- 경북 : 손광익, 서석보, 이수길
- 경남 : 박철용(부회장), 이명환
- 육우 : 강병권

(사)대한양돈협회

제16대 김동환 신임회장 당선

(사)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월 9일 대전 사또그레 이스 호텔에서 전체 대의원 168명중 1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동환 부회장을 제1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사는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회장단에 위임함에 따라 추후 선임키로 결정했다.

김동환 회장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안양시흥지부장,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양돈협회 감사, 2001년부터 올해 회장 선출 전까지 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1983년 남양농장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동환
- 수석 부회장 : 이병모
- 중부권 부회장 : 정종극
- 호남권 부회장 : 최희태
- 영남권 부회장 : 하태식

(사)대한양계협회

자조금사업 적극 추진키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2월 22일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예방



과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한 소비촉진, 종계DB 사업 정착 등을 포함하는 26억4천5백여 만원 규모의 올해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HPAI 발생과 소비위축으로 양계산업의 존폐의 위기에 당면해 있다며 HPAI 조기정확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미 FTA 협상 중 양계산업의 위협요소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계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구축하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육계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키고 산란계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수납기관 입법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지난 1998년 이후 동결됐던 회비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협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신임회장 선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2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연수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연수 신임회장은 경기도 파주에서 소래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연수
- 부회장 : 박성진
- 감사 : 김광삼, 김용현

(사)한국양육협회

강준수 회장 당선

(사)한국양육협회는 지난 2월 15일에 실시된 제 16대 임원선거에서 총 84명의 선거인이 투표해 36표를 득표한 강준수 후보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준수 신임회장은 1981년부터 양육업을 시작했고, 양육협회 김포지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사슴연합회장과 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강준수
- 부회장 : 전규현(충남 공주), 유현재(전남 나주), 이해곤(울산), 한의석(경기 평택), 양원석(강원 철원)
- 이사 : 이현우, 김범식, 김인한, 정재식, 이범우, 백복현, 백복현, 문동표, 김성용, 김광섭, 정유환, 강원배, 심태선
- 감사 : 이정익, 최현철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감사선임 및 가축개량대상 선정 · 시상

(사)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2월 27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가축개량사업에 공이 큰 농가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축개량대상 시상 및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가축개량대상에서는 한우부문에 감곡농장 대표 및 전북한우협동조합 장성운 조합장을 비롯 젓소부문에 김상호 송라목장 대표, 종돈부문에 (주)선진한우마을단 양GGP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한편, 임기만료된 감사선출에서는 박승술(한우)씨와 곽한무(젓소)씨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사)한국오리협회

협회 위상강화에 총력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지난 2월 27일~28일 양일간 충남 아산소재 증권연수원에서 정기총회 및 협회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무엇보다 협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우선이라며 각 분과별 회비 부과기준 등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오리협회는 분과위별로 사육농가회원은 연간 12만원, 부화분과회원은 판매수당 3원, 계열유통회원들은 판매수당 4원의 회비를 납부키로 했다.

(사)한국동물약품협회

김진구 신임회장 선출



(사)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된 제15차 정기총회에서 김진구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진구
- 부회장 : 이정협, 강석진, 장병표
- 이사 : 강승조, 김경한, 김승목, 라정찬, 민필홍, 유병문, 박병구, 안태욱, 여중원, 이원규, 이완상, 이정주, 이각모, 임창희, 조항원, 홍완표
- 감사 : 이태일, 신광호
- 명예회장 : 신정재
- 고문 : 이오직, 최죽송

(사)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 연임



(사)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월 27일 사료협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회장으로 김정호 현 회장을, 부회장으로 에스씨에프의 김정인 사장과 두산백두사료의 정진

항 부사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사료협회는 올해 사료원료의 공동구매와 하역 등 사료산업의 체질강화와 효율성 제고에 있어 협회가 중심이 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사)축산물HACCP기준원

올해 지출예산 22억5천여만원 의결



(사)축산물 HACCP기준원 (원장 곽형근)은 3월 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에서 정기총

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6년 결산과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정관 개정 등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올해 지출예산으로 22억 5천여만원을 의결했다.

2007년도 주요 추진 사업은 HACCP적용의 확대 및 활성화, 고객만족도 제고, HACCP 교육기관으로의 역량강화, HACCP 전문지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승인된 HACCP 인증 수수료 규정은 총회에서 보고한 대로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출장비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사)대한수의사회

수의료 전문화 등 5대핵심 사업계획 발표



(사)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의사면허 및 수의

료 전문화 체계 구축' '주의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시행기반 마련' '산업동물임상 활성화 정책 수립' '수의계 조직 역량강화' '관련법률 정비' 등 올해 5대 핵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수의사의 양성에서 전문의료체계의 구축까지 수의사면허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실시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인증 및 수의사국가시험 등 수의사면허취득과정을 개선기로 했다.

또 인턴 및 전문의과정과 평생교육과정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화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축산경영학회

학회장에 김정호 박사 취임

지난 2월 22일 개최한 한국축산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김정호 박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임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김정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농업구조경영연구센터장)
- 부회장 : 신해식(강원대학교 교수), 남성우(농협중앙회 상무), 박민수(농촌진흥청 경영과장)
- 감사 : 한성일(건국대학교 교수), 권용대(충남대학교 교수)
- 편집위원장 : 정경수(건국대학교 교수)
- 총무이사 : 허 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